

JOSHUA BELL & THE ACADEMY OF ST MARTIN IN THE FIELDS

CREEDIA

2018
CHAMBER
ORCHESTRA
SERIES —

CREDIA

조슈아 벨 &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2018.5.31.THU.8PM | SEOUL ARTS CENTER

JOSHUA BELL & THE ACADEMY OF ST MARTIN IN THE FIELDS

프로그램 PROGRAM 02

아티스트 PROFILE 08

지휘 및 바이올린 조슈아 벨 Joshua Bell

연주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Academy of St Martin in the Fields

프리뷰 PREVIEW 16

인터뷰 INTERVIEW 20

2018년 5월 31일 (목) 오후 8시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및 바이올린 | 조슈아 벨

연주 |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J.S 바흐 1685-1750

바이올린 협주곡 1번 A 단조 BWV 1041

15'

- I. 알레그로
- II. 안단테
- III. 알레그로 아사이

P. I 차이콥스키 1840-1893

현을 위한 세레나데 C 장조 Op.48

28'

- I. 소나티네 형식의 소품: 안단테 논 트로포 - 알레그로 모데라토
- II. 왈츠: 모데라토 - 템포 디 발세
- III. 엘레지:라르게토 엘레지아코
- IV. 피날레: 안단테 -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

CREDIA
중간휴식

S. 바버 1910-1981

현을 위한 아다지오

8'

A. 피아졸라 1921-1992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25'

- I. 항구의 여름
- II. 항구의 가을
- III. 항구의 겨울
- IV. 항구의 봄

- 위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양곡르 곡은 크레디아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pm Thursday, 31 May, 2018 at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Joshua Bell, Director & Violin
Academy of St Martin in the Fields

J.S Bach 1685-1750 **Violin Concerto No.1 in A minor, BWV 1041** 15'

I. Allegro
II. Andante
III. Allegro assai

P. I Tchaikovsky 1840-1893 **Serenade for Strings in C major, Op.48** 28'

I. Pezzo in forma di sonatina: Andante non troppo - Allegro moderato
II. Valse: Moderato - Tempo di valse
III. Élégie: Larghetto elegiaco
IV. Finale (Tema russo): Andante - Allegro con spirito

CREDIA
INTERMISSION

S. Barber 1910-1981 **Adagio for Strings** 8'

A. Piazzolla 1921-1992 **Las Cuatro Estaciones Porteñas
(The Four Seasons of Buenos Aires)** 25'

I. Verano Porteño (Summer in Buenos Aires)
II. Otoño Porteño (Autumn in Buenos Aires)
III. Invierno Porteño (Winter in Buenos Aires)
IV. Primavera Porteña (Spring in Buenos Aires)

·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ic devices.
·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J.S 바흐

바이올린 협주곡 1번 A 단조 BWV 1041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는 당대 가장 유명한 건반악기 비르투오소 가운데 한 명이었지만 그는 바이마르 궁전에서 바이올린 연주자로 경력을 시작했다. 악기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던 만큼 바이올린을 위한 그의 작품들에는 오직 바흐만이 찾아낼 수 있었던 악기에 대한 가능성과 심도 깊은 이해가 담겨 있다. 그가 이 악기를 위한 걸작을 남길 수 있는 기회는 1717년부터 23년 사이에 찾아왔다. 1717년 그는 “음악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모두 갖고 있는 친절한 왕자”라고 칭송한 퀴텐의 레오폴드 후작의 부름을 받고 그를 위해 봉사를 하게 되었다. 특히 레오폴드 후작은 이탈리아 예술에 대한 열정적인 신봉자로서, 바흐는 자연스럽게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협주곡 양식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특히 비발디의 협주곡들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자신의 작품에 이를 녹여 내기 시작했다.

그가 차용한 형식은 콘체르토 그로소로서 이 양식은 톤과 다이내믹, 솔로 악기 그룹들과 바이올린 솔리스트에 대한 조화와 대비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에 대한 훌륭한 예로 솔로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을 꼽을 수 있는데, 그가 작곡했다고 추정되는 여러 편의 협주곡 가운데 지금까지 완전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두 곡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도 남아 있다뿐이다. 자신이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에 만족해했던 바흐는 이를 하프시코드 협주곡으로 편곡하기도 했는데, 1번 A단조 협주곡은 건반악기 협주곡 G단조 BWV1058로, 2번 E장조 협주곡은 BWV1054로 현재 남아 있다.

A단조 협주곡은 그 분위기와 구조에 있어서 개성적인 부분을 몇몇 갖고 있다. 정력적인 분위기를 수반한 단조 협주곡으로서 1악장 (Allegro moderato)는 웅변조 스타일의 서주부로 시작하며 여기에 강한 리듬을 갖고 있는 리토르넬로를 수반하고 있지만 그 형태가 완벽하게 완성되지는 않다. 그런 까닭에 여느 비발디 협주곡과 마찬가지로 투티(Tutti: 연주자 전원이 동시에 연주하는 전합주) 부분과 독주부분이 교대로 연주되는 형식을 보여준다. 특히 솔로 바이올린 파트는 역동적인 모습을 띠고 있지만 톤에 있어서는 더없이 온화하다. 2악장 (Andante)는 우아한 장식음으로 장식된 멜로디가 달콤한 오스티나토(Ostinato: 어떤 파트가 같은 높이로 일정한 음형을 반복) 베이스 라인과 단단히 결부되면서 유려한 흐름으로 미끌어지는 듯 진행된다. 마지막 3악장 (Allegro assai), 피날레 악장은 9/8박자로서 솔로 파트는 리토르넬로(Ritornello: 합주와 독주가 되풀이 되는 형식)에 다다르기까지 오케스트라를 앞서기도 하고 뒤따라오기도 하며 전체와의 조화를 모색한다. 그러나 결말로 갈수록 점차 독립적인 성격을 띤다.



P. I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C 장조 Op. 48

모차르트를 유달리 존경했던 러시아 작곡가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Pyotr Il'yich Tchaikovsky, 1840~1893)는 비록 모차르트만큼 많은 수의 작품을 작곡하지는 못했지만 음악적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적 장르에 있어서도 모차르트를 따르고자 했다. 18세기 유럽 귀족사회에서 유행했던 음악장르인 세레나데는 그 음악적 간결함과 귀족적인 유희성 때문에 20세기까지 많은 작곡가들이 이를 다양한 편성으로 다루어왔는데 차이콥스키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1880년 가을 1812년 서곡과 동시에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작곡했는데 원래는 교향곡이나 실내악을 염두에 두고 작곡을 시작했지만 결국 현악 합주 형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천부적인 멜로디 작곡가로서 그는 몇 해 전 작곡한 발레음악 <백조의 호수>에서 보여주었던 것 같은 넘치는 아이디어와 천의무봉적인 멜로디의 향연, 작곡가의 언급대로 “가슴에서 우러난 감정을 담아 만든 작품”으로서의 가감 없는 진솔함을 가장 단순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다루고 싶었던 것이다. 보통 10개에 가까운 짧은 무곡들이 길게 구성된 고전적인 세레나데 구성 방식에서 벗어나 차이콥스키는 단 네 개의 음악으로만 조성했는데, 실제로 그 악장들의 진행과 구성은 고전적 소나티나 형식에 의거한 모차르트 스타일로서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은 교향곡 구성(자신의 교향곡에서 사용한 구성처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세레나데는 1880년 12월 3일 모스크바 콘서트홀에서 열린 프라이빗 콘서트에서 처음 연주되었고, 이후 공식적인 초연은 이듬해인 1881년 10월 30일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에두아르트 나프라브니크의 지휘로 이루어졌다. 그 공연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차이콥스키는 특히 존경했던 안톤 루빈스타인의 찬사에 크게 고무되었다고 전해진다.

1악장 (Pezzo in forma di sonatina: Andante non troppo - Allegro moderato)은 현악의 총주를 통해 힘차고 강건한 이미지의 도입부 이후 발전부 없이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주제들이 제시된 이후 클라이맥스와 재현부를 거친 뒤 코다로 이어진다. 2악장 (Valse: Moderato - Tempo di valse)은 교향곡 5번의 3악장을 연상시키는 왈츠 악장이며 교향곡에서 느린 악장에 해당하는 3악장 (Élégie: Larghetto elegiaco)은 녹턴 풍의 잔잔한 움직임과 온유한 분위기가 우수 젖은 낭만성을 배가시킨다. 4악장 (Finale (Tema russo): Andante - Allegro con spirito)은 러시아 주제에 의한 활기찬 피날레로서 러시아 민요 <목장에서>에서 차용한 느린 주제를 사용한 안단테 서주부 이후 활기찬 론도풍의 알레그로로 넘어가 역시 러시아 민요에서 기인한 명량한 1주제와 전원풍의 2주제가 조화를 이루며 흥겹게 끝을 맺는다.

S. 바버

현을 위한 아다지오

20세기 미국 작곡가 사무엘 바버(Samuel Barber, 1910~1981)가 작곡한 현을 위한 아다지오는 앨버트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많은 유명인사의 장례식 음악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 ‘플래툰’의 배경음악을 비롯한 많은 대중매체에 등장했을 만큼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몇 안 되는 20세기 음악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원래는 1936년에 작곡한 현악 4중주 Op.11의 느린 2악장 (Molto adagio)으로 이후 이를 현악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하여 1938년 1월 대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에게 악보를 보냈다. 토스카니니는 아무 말 없이 악보를 돌려보내 바버는 화가 났지만, 토스카니니는 이 악보를 한 번 보고 다 외워서 돌려보낸 것일 뿐 그해 여름에 지휘를 하겠다고 말한 뒤에야 오해가 풀렸다. 1938년 11월 5일 토스카니니는 NBC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스튜디오 8H에서 초연(초연 때까지 악보를 보지 않았다)을 했고 이내 언론과 청중으로부터 호평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비애감 어린 서정적인 주제 멜로디가 시작되면서 모노디 음악처럼 천천히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선적인 진행에 따라 전개된다. 그리고 음악은 현악기들의 부풀어오르는 듯한 합주와 비감 어린 장중함과 소리 없는 아우성에 비견할 만한 클라이맥스를 거친 뒤 공기 중으로 공허하게 사라지듯 음악은 끝을 맺는다.

A. 피아졸라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아스토르 피아졸라(Astor Piazzolla, 1921~1992)에 의해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 누에보 탱고(Nuevo Tango)의 등장
은 탱고 음악이 본격적인 예술음악으로서의 가능성을 비추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 화석이 될
수 있었던 탱고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은 원동력이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술집과 연주장에서 반도네온을
배우며 연주했던 피아졸라는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 콘서바토리에서 현대 프랑스 음악의 대모인 나디아 불랑제를 사
사하며 클래식 작곡가로의 길을 걷고자 했지만, 내면의 부름에 부응하는 음악을 선택하라는 불랑제의 가르침을 받고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왔다. 예술음악과 대중음악 양 쪽 모두에서 자양분을 섭취한 그는 음악적으로 끊임없이 새로
운 시도와 실험을 할 수 있었다. 그가 탱고에 끼친 영향은 아마도 마일즈 데이비스가 재즈에 끼친 영향에 직접적으로
비견할 만하다.

1940~50년대에 그는 오케스트라를 위해 교향악적으로 확장된 탱고를 작곡하거나 함께 연주했으며, 이상파괴적인 풍
조가 모든 것을 휩쓸었던 1960년대에는 자신이 조직한 '새로운 탱고'를 위한 5중주단'과 더불어 소규모 앙상블을 위한
음악을 작곡하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전기 기타가 포함된 것은 아르헨티나의 경건주의적 탱고 애호가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의 불협화음과 개방성은 전통적인 탱고의 깊고 원초적인 정서들과 묘한 병치환학적 효과를 일으키
며, 아르헨티나 도시인들의 소외된 삶과 꿈의 상실을 적나라하게 포착해냈다.

이는 탱고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특성인 도시적인 특성과도 맞물려 있다. 도시에서 시작되고 도시에서 발전했으며 도
시에서 연주되는 이 탱고는, 보통의 경우 농촌, 혹은 궁정을 중심으로 자생해온 민속음악과는 커다란 차이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도시적인 특성에 의한 감수성은 도시 중심으로 발전해가는 현대인들의 소외된 삶 속을 파고들어 본능적
인 성욕과 육감, 그리고 아련한 향수감을 자극한다. 이렇듯 도시의 연주장을 만족시켰던 탱고는 본격 오케스트라용으
로 편곡된 탱고 신포니코(tangos sinfonicos) 형태로도 연주될 뿐만 아니라 클래식 앙상블 형식인 탱고 카마라(tango
cámara)의 형태로도 변형되어 널리 연주된다. 이렇듯 엄격한 고전성과 스타일을 갖고 있는 한편 이와는 이질적인 자
유로운 변형과 시대적 흐름에 따른 발전이야말로 탱고 음악이 갖고 있는 수수께끼와 같은 매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매력으로 인하여 만약 모차르트가 그 시대에 탱고를 알았다면 <피가로의 결혼> 같은 오페라를 탱고 오페라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상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아마도 도시적 탱고의 변용으로 가장 대표적인 곡으로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를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이다. 18세기에 작곡된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와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사계와 더불어 20세기를 대표하는 사
계 음악으로 손꼽히는 이 음악은 원래 하나의 세트를 염두에 두고 작곡된 것이 아니다. 1965년에 가장 먼저 작곡된
'부에노스 아이레스 향구의 여름'(Verano Porteño)은 알베르토 로드리게스 무뇨스의 연극 <황금 멜레니타>를 위한
부수음악으로 작곡했던 것이고, 이후 1969년에 '부에노스 아이레스 향구의 가을'(Otoño Porteño)을, 1970년에 '부에
노스 아이레스 향구의 봄'(Primavera Porteña)과 '부에노스 아이레스 향구의 겨울'(Invierno Porteño)을 작곡하여
세트를 완성한 것이다. 이렇게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절을 탱고의 리듬에 따라 음악으로 그려낸 이 곡은 작곡가 자
신이 이끄는 반도네온 5중주를 위한 버전이 오리지널이지만, 이 작품이 21세기 접어들며 유명세를 탐에 따라 여러 가
지 솔로 악기를 위한 버전으로 편곡되어 연주되고 있다. 오늘 연주회에서는 바이올린 솔로와 현악 앙상블을 위한 편곡
버전으로 연주된다.

글 | 박재성 (음악 칼럼니스트)

하늘과 바다와 음악樂
CIELOS WEEKENTOUR SPECIAL 1

통영스토리 1박2일



모두가 꿈꿔온 여정
자연과 음악,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한 여름 통영의 푸른 바다에서 펼쳐지는
음악의 감동에 초대합니다.



- 여행일자 2018년 8월 17일(금)~18(토) 1박 2일
- 숙박 통영 스탠포드호텔
- 상품가 패키지 349,000원

스페셜 프로그램

프로그램 1 | 8/17(금) 15시 30분
렉처 <통영을 만나는 가장 멋진 방법>

프로그램 2 | 8/17(금) 19시 30분
황인용 & 황덕호 토크콘서트 <나의 음악, 나의 인생>

프로그램 3 | 8/17(금) 20시 30분
밋더아티스트 & 콘서트 프리 렉처

프로그램 4 | 8/18(토) 9시
해안산책

프로그램 5 | 8/18(토) 13시
실내악 마라톤 콘서트 <An die Musik>

*출연: 임동혁, 지용, 황수미, 박지민, 문태국, 김봄소리, 김한

*본 공연은 총 4시간 정도 진행되며, 리셉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클럽발코니&씨엘로스와 함께 하는 공감과 나눔의 문화여행

CIELOS WEEKENTOUR SPECIAL 시리즈는 아티스트, 문화 예술 명사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에서 음악과 음악이야기를 나누고, 색다른 여행의 매력을 재발견하며 경험하는 클럽발코니 & 씨엘로스만의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음악여행의 하이라이트, 실내악 마라톤 콘서트 <An die Musik>

한 여름의 통영바다를 클래식으로 수놓을 실내악 마라톤 콘서트는 장장 4시간에 걸쳐 펼쳐지며 이번 여행의 아름다운 마침표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한 듯한 감동을 느끼며 연주자를 응원하고 공연의 여운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됩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음악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여정에 동행하세요.

문의 1577-5266 010-9799-5266 www.clubbalcony.com





CREDIA

© SHEPHERD LAINIEZ

조슈아 벨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은 이 시대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이다. 또한 그의 끊임 없는 호기심과 열정, 다양한 음악적 관심은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 필즈(이하 ASMF)의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조슈아 벨은 1958년 이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네빌 마리너 경의 뒤를 이어 임명된 ASMF의 첫 음악감독이다.

소니 클래식의 전속 아티스트인 조슈아 벨은 18세 때 데카 레이블로 나온 첫 LP 레코딩 이후 40장이 넘는 음반을 발매하여 그래미 상, 머큐리 상, 그라모폰 상과 에코 클래식 상 등을 수상했다. 조슈아 벨과 ASMF의 첫 번째 앨범인 베토벤 교향곡 4번과 7번은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으며, 이어 발매된 바흐 앨범은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최근 발매된 다른 앨범으로는 피아니스트 제레미 뎅크와 연주한 <French Impressions>가 있으며, <At Home With Friends>, ASMF와 연주한 <비발디 사계>, 베를린 필하모닉과 연주한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등이 있다. 그의 음반들은 주요 바이올린 레퍼토리 대부분을 녹음했을 뿐 아니라, 팝(스팅, 조쉬 그로반), 재즈(칙 코리아, 브랜포드 마샬리스), 블루그래스(에드가 메이어, 벨라 플렉), 영화음악(오스카 상을 수상한 존 코릴리아노의 <레드바이올린> 사운드트랙, 오스카 상에 노미네이트 되었던 나이젤 헤스의 <라벤더의 연인들>의 사운드트랙) 등 세계적인 다양한 장르 영역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참여한 작업들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6월 22일에는 ASMF와 녹음한 브루흐 스코틀랜드 환상곡과 G단조 협주곡 앨범이 발매될 예정이다.

인디애나 주의 블루밍턴에서 태어난 조슈아 벨은 4살 때 처음 바이올린을 시작했으며, 12살에는 인디애나대학에서 전설적인 조세프 강골드 교수를 사사했으며, 현재 모교와 제이콥스 음악원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14살에 리카르도 무티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스타덤에 오르기 시작했으며, 17살에 카네기 홀 데뷔와 첫 유럽 투어를 가졌다.

‘음악가들의 음악가’로만 알려졌던 조슈아 벨의 이름이 누구에게나 알려지게 된 계기는 아마도 2007년 워싱턴DC 지하철 역에서 그가 유명 연주자임을 숨긴 채 진행한 연주였을 것이다. 조슈아 벨은 진 웨인가튼이 기획한 워싱턴 포스트 지의 특집기사에 모험적으로 참여했는데, 사람들의 예술적 감각에 대한 실험이었다. 이 특집기사는 진 웨인가튼에게 풀리처상을 안겨 주었고 국제적인 논의거리로 떠올랐다. 토의는 지금까지 이어져, 2013년 캐시 스티슨이 쓰고 듀산 패트릭이 삽화를 그린 아동도서인 ‘아무도 듣지 않는 바이올린(The Man with the Violin)’에 영감을 주었다.

조슈아 벨은 또한 수많은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2013년 뉴욕 레코딩 아카데미, 2012년 내셔널 영 아츠 재단이 수여하는 상을 수상했으며, 2011년 아츠 호리존의 폴 뉴먼 상, 모먼트 매거진이 수여하는 허버먼 상을 수상했다. 뮤지컬 아메리카로부터 ‘2010 올해의 연주자’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시턴홀 대학교로부터 인도주의상을 수상했다. 2009년에는 ‘음악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Music)’ 단체로부터 명예훈장을 받았으며, 2008년에는 미국 공로 아카데미상을 받았다. 2007년에 에이버리 피셔상을 수상했으며, 2005년 할리우드 볼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2003년에 조슈아 벨은 세계경제포럼에 초대받아 전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공연했으며 후에 이곳에서 차세대 글로벌 지도자로서 인정받았다. 음악의 외교적, 교육적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조슈아 벨은 세 명의 미국 대통령과 중국 대통령 앞에서 공연했으며, 미국 빈민 지역 아이들에게 악기를 제공하는 ‘음악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Music)’ 등 자선 공연에도 헌신해왔다.

조슈아 벨은 1713년의 후버먼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과 18세기 말에 투르트가 제작한 프랑스 활을 사용한다.

JOSHUA BELL

Violinist, Music Director of the Academy of St Martin in the Fields

Joshua Bell is one of the most celebrated violinists of his era, and his restless curiosity, passion, and multi-faceted musical interests are almost unparalleled in the world of classical music. Selected as Music Director of the Academy of St Martin in the Fields by the musicians in 2011, Bell is the first person to hold this post following Sir Neville Marriner, who formed the orchestra in 1958.

An exclusive Sony Classical artist, Joshua Bell has recorded more than 40 CDs since his first LP recording at age 18 on the Decca Label, garnering Grammy, Mercury, Gramophone and Echo Klassik awards in the process. The Academy of St Martin in the Fields' first release under Bell's leadership, Beethoven Symphonies No. 4 and 7, debuted at #1 on the Billboard charts, and was followed up by the critically acclaimed Bach. Other recent releases include French Impressions with pianist Jeremy Denk, At Home With Friends, Vivaldi's The Four Seasons with the Academy of St Martin in the Fields, and Tchaikovsky's Violin Concerto with the Berlin Philharmonic. His discography encompasses much of the major violin repertoire as well as ground-breaking collaborations across multiple musical genres with respected artists from the worlds of Pop (Sting, Josh Groban), Jazz (Chick Corea, Branford Marsalis), Bluegrass (Edgar Meyer, Bela Fleck) and Film (including John Corigliano's Oscar-winning soundtrack, The Red Violin, and the Oscar-nominated score to Ladies in Lavender written by Nigel Hess and starring Dames Judi Dench and Maggie Smith). Scheduled for release on 22 June 2018 is Bell's recording with the Academy of Bruch's Scottish Fantasy and G minor Concerto.

Born in Bloomington, Indiana, Joshua Bell received his first violin at age four and at 12 began studying with the legendary Josef Gingold at Indiana University where he now serves as a senior lecturer at the Jacobs School of Music. At the age of 14 Bell began his rise to stardom, performing with Riccardo Muti and the Philadelphia Orchestra and at age 17 making his Carnegie Hall debut and touring Europe for the first time.

Perhaps the event that helped most to transform his reputation from 'musicians' musician' to 'household name' was his incognito performance in a Washington, DC subway station in 2007. Ever adventurous, Bell had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Washington Post story by Gene Weingarten which thoughtfully examined art and context. The story earned Weingarten a Pulitzer Prize and sparked an international firestorm of discussion. The conversation continues to this day, thanks in part to the September 2013 publication of the children's book *The Man with the Violin* by Kathy Stinson, illustrated by Dušan Petričić from Annick Press.

Joshua Bell has received many accolades: in 2013 he was honoured by the New York Chapter, The Recording Academy; in 2012 by the National Young Arts Foundation; in 2011 he received the Paul Newman Award from Arts Horizons and the Huberman Award from Moment Magazine. Bell was named 'Instrumentalist of the Year, 2010' by Musical America and received the Humanitarian Award from Seton Hall University. In 2009 he was honoured by Education Through Music and he received the Academy of Achievement Award in 2008. He was awarded the Avery Fisher Prize in 2007 and was inducted into the Hollywood Bowl Hall of Fame in 2005.

In 2003 Joshua Bell was chosen to perform at the World Economic Forum for an audience of world leaders and was later recognized by that prestigious organisation as a Young Global Leader. Convinced of the value of music as both a diplomatic and educational tool, he has performed for three U.S. Presidents as well as the President of China and has devoted himself to several charitable causes, most notably Education Through Music, which has helped put instruments in the hands of tens of thousands of kids in the inner cities of America.

Joshua Bell performs on the 1713 Huberman Stradivarius violin and uses a late 18th century French bow by François Tourte.

Find out more about Joshua Bell at www.joshuabell.com

현의 거장

JOSHUA BELL

조슈아 벨

섬세하고 아름다운
독보적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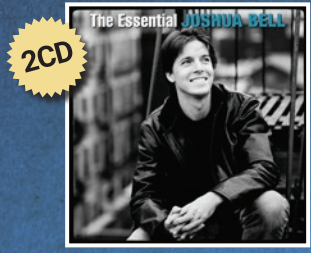


New Album

Scottish Fantasy

2018.06.22 발매

Also Available



THE ESSENTIAL JOSHUA BELL



BACH



FOR THE LOVE OF BRAHMS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체임버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 전 세계의 위대한 관현악 곡들을 신선하고 성공적으로 해석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악장이었던 네빌 마리너 경의 의해 1958년 창단되었으며, 단체명은 그들이 1959년 11월 첫 공연을 열었던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라는 교회명에서 비롯되었다.

독보적인 연주와 다양한 레코딩을 통해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는 독특하고 세련되며 정제된 사운드라는 국제적인 명성을 빠르게 얻을 수 있었다. 주요 작업으로는 1969년 발매하여 베스트셀러가 된 비발디의 <사계>,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한 영화 <아마데우스> OST가 있다. 극찬을 받은 500장의 넘는 앨범과 다양한 투어프로그램으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음악은 전 세계 클래식 청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는 비르투오스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 음악감독으로 이끌고 있으며, 이제는 이 단체의 특징이 되기도 한 본래의 지휘자로부터 자유로운 작은 앙상블의 학구적인 정신과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다.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는 조슈아 벨의 지휘 아래, 리더이자 디렉터인 토모 켈러, 수석 객원 지휘자인 머레이 페라이어와 함께 연주와 지휘를 겸하는 무대의 영역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현대 한 규모의 교향악 레퍼토리와 체임버 음악을 전 세계 유명 공연장들에서 선보이고 있다.

2018/19년도에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는 피아니스트 키트 암스트롱, 첼리스트 안드레아스 브란텔리드, 피아니스트 제레미 댁크, 바이올리니스트 율리아 피셔와 함께 공연하며 유럽 전역과 미국, 멕시코 투어를 진행한 다. 또한 영국과 여러 나라에서 흥미진진한 프로젝트들과 함께 60주년 기념공연을 2019년에 앞두고 있다.

해외 스케줄을 바쁘게 소화하면서도,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들의 주요 프로젝트는 미래의 음악가들을 위한 마스터클래스 투어와 초등 및 중등 학교 아이들을 위한 공연 워크샵으로, 사우스뱅크 시포니아, 길드홀 음악 연극 학교, 로열 노던 음악학교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 진행하고 있다.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는 런던에서 가장 취약한 노숙자 센터의 성인들을 위해서 창의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연 전 사전 토크 및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오케스트라와 함께 전 세계의 관객들이 연결되고 배울 수 있는 창의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CADEMY OF ST MARTIN IN THE FIELDS

The Academy of St Martin in the Fields is one of the world's finest chamber orchestras, renowned for fresh, brilliant interpretations of the world's greatest orchestral music.

Formed by Sir Neville Marriner in 1958 from a group of leading London musicians, the Academy gave its first performance in its namesake church in November 1959. Through unrivalled live performances and a vast recording output - highlights of which include the 1969 best-seller Vivaldi's *Four Seasons* and the soundtrack to the Oscar-winning film *Amadeus* - the Academy quickly gained an enviable international reputation for its distinctive, polished and refined sound. With over 500 releases in a much-vaunted discography and a comprehensive international touring programme, the name and sound of the Academy is known and loved by classical audiences throughout the world. Today the Academy is led by Music Director and virtuoso violinist Joshua Bell, retaining the collegiate spirit and flexibility of the original small, conductor-less ensemble which has become an Academy hallmark. Under Bell's direction, and with the support of Leader/Director Tomo Keller and Principal Guest Conductor Murray Perahia, the Academy continues to push the boundaries of play-directed performance to new heights, presenting symphonic repertoire and chamber music on a grand scale at prestigious venues around the globe.

In 2018/19 the Academy collaborates with artists including pianist Kit Armstrong, cellist Andreas Brantelid, pianist Jeremy Denk and violinist Julia Fischer for tours across Europe, the USA and Mexico. The orchestra looks forward to celebrating its 60th anniversary year in 2019 with exciting projects in the UK and beyond.

Complementing a busy international schedule, the Academy continues to reach out to people of all ages and backgrounds through its Learning and Participation programmes. The orchestra's flagship project for young people provides performance workshops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children; partnerships with Southbank Sinfonia, the Guildhall School of Music and Drama, the Royal Northern College of Music and masterclasses on tour further the development of the professional musicians of tomorrow; the Academy provides a creative outlet for some of London's most vulnerable adults at a centre for homeless people; and a regular programme of pre-concert talks and podcasts create opportunities for Academy audiences the world over to connect and learn with the orchestra.

To find out more about the Academy of St Martin in the Fields please visit www.asmf.org, or follow the orchestra on Facebook, Twitter and Instagram. If you are interested in getting involved and supporting the work of the Academy, please contact development@asmf.org.





© UNISTREAM PHOTOGRAPHY

CREDIA

VIOLINI

Joshua Bell *Director*
 Harvey de Souza
 Katie Stillman
 Amanda Smith
 Jeremy Morris
 Winona Fifield
 Joanna Wronko
 Raja Halder

VIOLIN II

Martin Burgess
 Jennifer Godson
 Matthew Ward
 Richard Milone
 Sijie Chen
 Alicja Smietana

VIOLAS

Robert Smissen
 Ian Rathbone
 Martin Humbey
 Nicholas Barr

CELLOS

Martin Loveday
 William Schofield
 Judith Herbert
 Sarah Suckling

DOUBLE BASSES

Lynda Houghton
 David Stark

HARPSICHORD

John Constable

2018
CHAMBER
ORCHESTRA
SERIES



빅토리아 물로바 & 제네바 카메라타

지휘 데이빗 그렐자메르 DAVID GREILSAMMER

바이올린 여제,
가장 로맨틱한 멘델스존으로 돌아오다

CREEDIA



2018.6.8 FRI 8 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CREEDIA INTERNATIONAL 후원 | KOREAN AIR



Germanische Engagementsstelle
Cultural Foundation
Cultural Foundation Korea
Cultural Foundation Korea



Embassy of Switzerland in the Republic of Korea

예매 | Club BALCONY 1577-526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VIKTORIA MULLOVA & GENEVA CAMERATA

2018
CHAMBER
ORCHESTRA
SERIES



미샤 마이스키 & 비엔나 체임버오케스트라

지휘 슈테판 블라더 STEFAN VLADAR

마이스키 70세 기념!
첼로의 거장이 선보이는 압도적인 차이콥스키



2018.6.16 SAT 5 PM
롯데콘서트홀

주최 | CREEDIA INTERNATIONAL 후원 | KOREAN AIR

예매 | Club BALCONY 1577-526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MISCHA MAISKY & VIENNA CHAMBER ORCHESTRA

아름다운 남자, 조슈아 벨



ASHLEY NIXON ©



무대 위의 조슈아 벨은 단 한 번도 같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한 무대에선 가냘픈 음색과 서정적인 연주를 들려주다가도 또 다른 무대에선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강렬한 표현력으로 관객을 사로잡으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 그는 화려한 조명을 받는 콘서트홀의 무대뿐 아니라 지하철역에서의 연주도 마다하지 않고, 정통 클래식 명곡연주 외에도 영화음악 사운드트랙 연주 등 다양한 행보를 보이며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특히 ‘꽃미남’ 바이올리니스트로 주목 받으며 연주회 중 한 여성 관객의 공개 사랑고백까지 받는 등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오는 5월 31일, 영국의 명문악단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이하 ASMF)의 음악감독으로서 첫 내한공연을 선보이는 벨의 공연에선 한 악단을 이끌어가는 ‘음악감독’으로서의 조슈아 벨의 리더십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

바이올린의 매력을 탐구하는 진지한 음악가

아마도 필자가 조슈아 벨의 연주를 처음 들은 1990년대 후반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음반으로만 벨의 연주를 들으며 감탄하고 있다가 그가 KBS교향악단과 협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공연 티켓을 예매했다. 당시 벨이 선택한 곡은 그 유명한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었다. 잔향시간이 짧은 KBS홀의 건조한 음향 때문인지 벨의 바이올린 톤은 다소 가냘프고 다소 밋밋하게 느껴졌지만, 2악장의 서정성이 특히 가슴에 와 닿았다. 활의 끝부분을 주로 활용해 음과 음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해내는 그의 보잉도 인상적이었다.

공연이 끝난 후 함께 음악회를 관람한 친구와 벨의 음반에 사인을 받으러 무대 뒤로 찾아가했을 때, 벨은 흔쾌히 사인도 해주고 음악공부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그리스 조각상을 연상시키는 미남인데다 세계적인 스타인 그의 첫인상은, 예상과는 달리 소박하고 털털했다. 가식 없이 사람을 대하는 그에게서 스타 기질보다는 음악에 대한 진지함과 성실함이 엿보였다. 실제로 그의 진지한 성격은 바이올린 연주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 이후 2007년 예술의전당 독주회 때 국내 음악애호가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벨은, 음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이 파고들듯 진지한 자세로 연주에 임하며 ‘음악의 구도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당시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로부터 여러 바이올린 소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던 벨은, 특히 연주회 후반에 선보인 세 곡의 바이올린 소품 연주에서 놀랄 만큼 아름다운 연주로 청중의 귀를 사로잡았다. 벨은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와 풍스의 ‘작은 별’ 등 잘 알려진 소품을 연주했는데, 활의 힘과 속도를 세심하게 안배하며 다채로운 뉘앙스를 만들어내는 그의 연주는 경이로웠다. 어느 한 음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음 하나하나의 의미를 파고들듯 오랜 고민과 성찰의 흔적이 역력했다.

“위대한 성악가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주 작고 부드러운 소리로 노래하며 당신을 내면으로 끌어들이니다.”

벨의 바이올린 스승인 조세프 강골드가 남긴 이 말은 조슈아 벨에게 항상 따라야 할 가르침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실제로 벨의 연주를 들어보면 이 말을 실감할 수 있다. 마법과 같은 피아니시모의 매혹이 포르티시모의 강렬한 폭발보다 인간의 마음을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닌 벨은, 화려하고 과시적인 무대매너와 폭발적인 사운드를 구사하는 이 시대 바이올리니스트들과는 정 반대 노선을 걷는 듯하다. 그런 까닭인지 때때로 그의 바이올린 톤은 다소 약하고 가냘프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의 연주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오히려 귀가를 스치는 그의 감미로운 피아니시모가 훨씬 더한 감정의 파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최근 들어 벨의 바이올린 연주는 더욱 강렬하고 힘차고 화려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11월에 하딩이 이끄는 파리오케스트라와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했을 때 그는 매우 열정적인 연주로 청중의 귀를 사로잡았다. 무대 매너는 더욱 자신감에 차 있었고 한 음 한 음의 소리가 명확하여 전달력이 뛰어났다. 그의 음색은 가냘픈 듯하지만 초점이 분명하여 멘델스존의 서정적인 선율의 아름다움을 매우 잘 살려냈을 뿐 아니라 글리산도(glissando, 음과 음 사이를 미끄러지듯 연주) 주법은 달콤한 느낌을 자아내기도 했다.

본래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작곡가 자신이 직접 쓴 카덴차(cadenza, 협연자가 오케스트라 연주 없이 홀로 기량을 과시하는 부분)가 있지만 벨은 카덴차 부분의 음악을 직접 작곡해 선보이며 이 곡을 좀 더 화려하고 극적으로 표현해내는 파격도 선보였다. 일찍이 작곡가가 되고 싶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던 벨은 그의 음반을 통해 직접 작곡한 카덴차를 선보이거나 다채로운 편곡 기법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지난 파리 오케스트라와의 내한공연에서 멘델스존 협주곡의 카덴차를 자신의 것으로 연주해 내며 작곡가로서의 능력을 입증해낸 셈이다.

조슈아 벨과 ASMF

조슈아 벨이 ASMF의 음악감독이 된 후 이 악단의 음색이 더 “달콤해졌다”(뉴욕 타임즈, 2016년)는 평가다. 아무래도 현악기 위주의 실내악단인 ASMF가 현악기 연주의 달인인 조슈아 벨을 음악감독으로 맞이하면서 리더의 음색을 닮아가는 모양이다. 최근 들어 서정성을 넘어 더욱 달콤하고 감각적이며 화려한 음색을 선보이고 있는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연주는 분명 ASMF의 사운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ASMF는 60년의 전통을 이어온 세계 최고의 실내악단 중 하나로 영화 <아마데우스>의 사운드트랙을 녹음해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하며 대중에게 더욱 널리 알려져 있다. 그동안 여러 음반을 통해 들려준 ASMF의 음색은 본래 영국 악단 특유의 정돈된 밸런스와 정갈한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지난 2011년에 조슈아 벨을 음악감독으로 맞이한 이후 8년째 벨과 호흡을 맞춘 ASMF의 음색이 과연 어떻게 변모했는지 주목된다.

조슈아 벨은 이미 지난 2010년에 ASMF와 함께 내한공연을 한 적이 있다. 당시까지만 해도 벨은 ASMF의 음악감독은 아니었지만, 이미 비발디의 <사계> 음반으로 이 악단과 찰떡궁합을 과시했던 탓인지 마치 ASMF와 한 몸인 양 영감에 찬 연주를 선보여 갈채를 받았다. 당시 베토벤의 교향곡 제7번을 ASMF와 함께 연주한 벨은 악장 자리에 앉아 역동적인 리듬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며 한국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전문 지휘자가 없던 19세기 초반에 악장이 오케스트라를 리드하던 방식 그대로 진행된 그날 연주회에서 지휘자로 서의 조슈아 벨의 감각도 엿볼 수 있었다.

올해 ASMF와의 내한 공연에선 바이올린 협연곡과 현악합주곡이 적당히 섞여 있어, 지휘자와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조슈아 벨의 활약을 모두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공연에선 현악합주의 명곡을 꼽히는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와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그리고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과 피아졸라의 <사계>가 연주된다. 특히 ASMF와 조슈아 벨은 이미 비발디의 <사계>를 매우 훌륭하게 연주해낸 적이 있기에, 피아졸라의 <사계>는 각별한 관심을 모은다.

10여 년 전, 벨과 ASMF가 음반을 통해 선보인 비발디의 <사계>는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라기보다는 낭만주의 시대의 감성적인 음악처럼 다가와서 인상적이다. 대개 비발디 <사계>를 연주하는 최근의 연주단체들은 리듬이나 악센트를 강조하는 편이지만 벨의 관심사는 ‘리듬’이 아니라 ‘선율’이다. 벨의 활 끝에서 우아하게 마무리된 선율에서 부드러운 곡선미마저 느껴진다. 또한 ASMF의 음색은 잘 다듬어져 있고 통일감이 있어 바이올린 독주와 잘 화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첼발로 주자의 화려한 장식음형이 많이 첨가되어 듣는 재미를 더해준다.

이제 비발디 <사계>를 넘어 피아졸라 <사계>에 도전하는 조슈아 벨과 ASMF. 본래 피아졸라의 <사계>는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의 날카롭고 역동적인 연주로 유명해졌지만, 벨과 ASMF의 연주라면 이 곡에 숨은 서정적이고 관능적인 매력이 더욱 잘 드러나리라 기대된다. 물론 이번 공연 전반부에 연주될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에서 ASMF의 정갈한 음색과 벨의 감성적인 연주가 탄생시킬 ‘새로운 바흐’에도 주목하고 싶다.

글 | 최은규 (음악 칼럼니스트)



빈 필하모닉, 랑랑과 함께 떠나는 유럽 뮤직 크루즈 자유여행 9박 10일

아웃사이드 캐빈
크루즈 내 전일정 식사, 음료, 와인, 맥주, 생수 포함
지상 선상 공연 프로그램

전 세계의 음악애호가와 빈 필 오케스트라가 함께 탑승하여 매일 클래식 음악회를 여는 열흘간의 꿈 같은 크루즈 여행, 합리적인 비용과 자유로운 일정으로 떠나보세요!

- 여행 일자 : 2018년 9월 7일 ~ 16일 (9박 10일)
- 여행지 : 브레머하펜(독일) - 르아브르(프랑스) - 런던(영국) - 브뤼헤(벨기에) - 암스테르담(네덜란드) - 함부르크(독일)
- 상품가 : **695만원(4명 한정), 725만원(10명 한정)**
(현금가, 항공료 및 여행 경비 별도)

- * 본 여행은 모든 일정을 직접 계획할 수 있는 자유여행 상품입니다.
- * 크루즈 선실 및 서비스, 공연티켓 포함
- * 항공료와 기항지 여행 경비 불포함
- * 발코니캐빈 및 패키지 상품은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ROGRAM

- [공연1] **글라인드본 오페라 하우스** 빈 필하모닉 & 프란츠 뵘저 뉘스트
- [공연2]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 빈 필하모닉, 랑랑 & 프란츠 뵘저 뉘스트
- [공연3] **함부르크 엘프 필하모니** 빈 국립 오페라 & 아담 피셔 <피가로의 결혼>
- [공연4] 테너 **표트르 베찰라 리사이틀** (선상 공연)
- [공연5] 알마 도이처 **리사이틀** (선상 공연)
- [공연6] 알마 도이처의 오페라 <신데렐라> **하이라이트** (선상 공연)
- [공연7,8] 빈 필 앙상을 실내외 콘서트 (선상 공연)
빈 필 공개 리허설
연주자와의 만남 및 사인회, 렉처

* 본 여행일정과 프로그램은 아티스트 또는 현지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정상 아티스트와의 만남
빈 필과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지휘자 프란츠 뵘저 뉘스트 그리고 아담 피셔, 피아니스트 랑랑, 테너 표트르 베찰라 그리고 세계적인 음악신동 알마 도이처의 무대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항지와 선상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음악여행
매일 열리는 선상음악회와 오픈 리허설을 비롯, 글라인드본 오페라하우스와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 그리고 최근 함부르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엘프 필하모니 기항지 콘서트까지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속 항구 르 아브르, 벨기에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브뤼헤 등 아름다운 소도시와 런던, 암스테르담, 함부르크 대도시를 거치는 음악여행. 크루즈선은 밤새 움직여 매일 새로운 기항지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INTERVIEW *with* JOSHUA BELL

매우 어린 나이에 데뷔했고, 동시에 여러 상을 수상하며 주목 받았습니다. 어린시절 당신은 이미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데, 슬럼프를 겪지는 않았나요? 그 이후 지금까지 어떤 목표나 동기를 갖고 음악가로서의 삶을 이어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음악적인 삶을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음악적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가족 중에 프로페셔널한 음악가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께서 어릴 적에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들을 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고, 직접 악기를 가르쳐주기도 하셨죠.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음악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농담처럼 말하는 것지만 제가 비디오게임을 좋아하는 걸 보면 단순히 빠져있는 게 아니라 중독 수준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몰두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게 악기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악기와와 특별한 관계도 있죠. 악기 가방을 열고 1713년에 제작된 훌륭한 바이올린을 보면서 어떻게 “오늘은 연주하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겠어요!

한국에서 리사이틀, 협연으로 주로 내한했습니다. 오랜만에 음악감독으로 있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이하 ASMF)와 한국에서 공연을 가지는 소감은 어떤가요?

아주 기대가 돼요, 우선은 한국에서 연주하는 것을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만나본 관객 분들 중 한국 관객은 최고예요. 음악을 가장 잘 이해해주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한국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만 특히 이번에는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ASMF와 함께 오게 되어 기쁩니다.

처음 ASMF의 음악감독을 제안을 받았을 때가 기억나시나요? 음악감독 직을 수락하기까지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별로 고민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이 된 것은 큰 정말 큰 기쁨이기 때문이죠. ASMF와의 작업은 매 해 제가 가장 기대하는 일입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제게 가족 같고, 솔로이스트로서는 30년 이상 함께 작업해왔죠. 함께 레코딩

하고, 투어를 포함해서요. 오케스트라 멤버들이 제가 공식적으로 음악감독직을 하길 요청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좋아요!”라고 말하기까지 주저하지 않았어요. 저의 커리어에서 딱 적시에 이런 기회를 주셨고, 당시 저는 저의 레퍼토리를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죠.

전문가들은 ‘조슈아 벨이 젊고 신선한 해석으로 오케스트라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8년 동안 ASMF의 달라진 점이나 발전된 점이 있다면요.

ASMF는 항상 훌륭한 오케스트라였어요, 근데 이제는 오케스트라와 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게 되어 꼭 ASMF가 더 잘하게 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소통이 정말 잘 되는 것 같고 서로를 너무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공연 때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동시에 지휘를 하는데, 제가 주는 모든 사인과 에너지를 전부 이해하죠. 이 오케스트라가 항상 지녀온 놀라움 정도의 세밀함이라는 장점을 계속 유지하며 어쩌면 오케스트라의 에너지에 제 에너지를 보태는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매번 노력할 뿐이에요. 이번 한국 공연의 오케스트라 규모는 조금 작을 예정이지만, 프로그램이 매우 흥미진진 할거예요.

이번 한국에서의 내한공연을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특별히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번 콘서트의 오케스트라는 현악기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저 역시 현악기를 연주하죠. 하지만 프로그램이 다양할거라서 저는 이 구성이 마음에 들어요. 바흐는 역사상 가장 완벽한 작곡가였습니다, 작품이 매우 아름답기도 하고요. 그의 협주곡 중에서는 느린 악장이 가장 아름다운 선율과 음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이코프스키의 세레나데도 연주하는데요, 규모가 조금 작은 오케스트라이지만 이 작품을 연주하면 아주 큰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들릴거예요. 그리고 차이콥스키는 멜로디 선율의 명인이기도 했으며 신나는 감정과 에너지를 잘 전달할 줄 아는 작곡가였어요. 훌륭한 작품이에요.

차이코프스키 작품과 대조적으로는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를 연주합니다.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작품 중 하나이며 영화에도 사용되었어요. 피아졸라는 또 전혀 다른 느낌의 작품이에요, 연주자나 관객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곡이죠. 비발디 사계의 탱고 버전이죠, 아르헨티나와 탱고 느낌이 물씬 나며 프로그램 마지막에 연주하기에 정말 재미있습니다.

음악감독으로 활동해보면서 음악에 대한 관점이나 생각이 변하기도 했나요?

어떤 예술가든, 생각은 항상 변하게 되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런 면에선 항상 학생인 거죠. 스스로도 매년 다른 타입의 음악가가 되어있어요. 오케스트라와의 작업을 통해 더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더 좋은 음악가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오케스트레이션을 이해해야 하고 대부분의 베토벤 교향곡도 지휘/감독해보는 경험을 하는 등, 전에 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감독으로 오케스트라와 작업하며 음악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음악만큼이 멋진 외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자주 하지요. 음악가로서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외모에 대해서는 크게 할말은 없는 것 같아요. 광고물이나 공연 포스터에서는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수 있지만 무대에 위에서 필요한 건 카리스마와 에너지예요. 외모가 훌륭하지만 연주가 지루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연주자의 공연은 한 번 보고 다시는 보러 오지 않겠죠. 그래서 외모는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 같아요.

음악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취미활동을 하나요?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음악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기도 하시지요?

스포츠 하는걸 좋아해요, 어릴 땐 테니스도 많이 치고 농구도 했었어요. 스포츠에 대한 접근법이 음악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싶으면 연습할 의향이 있어야 하는거죠. 한국사람들이 이런 건 잘 하는 것 같아요. 일을 대하는 자세가 참 좋아요. 미국의 아이들에게는 이런 면이 부족해요. 부족하다고 말하는게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저는 이런 이유로 미국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을 권장합니다. 음악을 통해 일을 대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거든요. 무언가를 더 잘하는 방법을 배우는데는 음악 교육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 생각이 정말 사실이라고 저는 믿어요.

스포츠의 경우 지금은 관람을 즐깁니다, 음악과 그 외 모든 것으로부터 탈출구 같은거죠. 미식축구 보는 것도 좋아하고 요즘은 야구 시즌이 거의 끝나가서 플레이오프도 재미있게 보고있어요. 모든 경기를 챙겨보고 있는데 아시아 방문 중에도 인터넷으로 챙겨볼 예정이에요. 때론 공연시간 중에 경기가 있기도 해서 모든 경기를 라이브로 보지는 못하겠지만요. 제때 챙겨보지 못하는 경기는 녹화 해주었다가 봅니다.

Turnaround Arts와 Education Through Music을 통해 음악교육에도 참여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두 단체 모두 어린 친구들에게 음악을 접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보통은 음악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학교를 찾아가요. 유감스럽게도 미국 학교 시스템에서는 예산 삭감이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제외하는게 음악이에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모든 과목에 도움을 줄 수 있는게 바로 음악 수업이거든요. 두 단체의 미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참여하고 있고 도움이 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음악적인 부분이나 음악 외적인 부분 모든 영역을 포함해서요.

하고싶은 게 너무 많아요, 지휘도 더 하고 싶고 작곡도 더 하고 싶어요. 살면서 꼭 더 많이 해보고 싶은 것은 작곡인 것 같아요, 원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산 것 같아요.

골프도 더 잘 치고 싶고, 레스토랑을 하나 열 계획도 있어요. 먹는 것을 좋아해서 뉴욕에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음식도 너무 좋아합니다. 뉴욕의 제 집이 있는 거리에 최근에 고급 한국 레스토랑이 생겼어요, 미술랑 스타도 획독한 곳이에요. 한국 바베큐이지만 보통보다 조금 더 세련되고 고상한 스타일의 레스토랑입니다. 정말 훌륭한 곳이죠. 제가 사는 곳이 코리아타운에서 10블록 떨어진 곳이라 걸어가서 한국음식을 먹고는 해요. 이번 한국방문 기간이 안타깝게도 매우 짧지만 그래도 매우 기대됩니다.

2020년까지 ASMF의 음악감독직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음악감독으로서 계획이 궁금합니다.

지휘자이자 솔로리스트로서 저의 목표는 항상, 작곡가가 의도한 음악을 보여드리자는 것입니다. 최근 ASMF와 계약을 갱신한 것이 무척 기쁘고, ASMF의 미래에 더 음악적으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최근 ASMF와 에드가 마이어 (Edgar Meyer)와의 새로운 작품을 공연하기도 했고 그 밖에 무척 다양한 훌륭한 음악가들도 있지요. ASMF와 함께 이런 새로운 레퍼토리를 찾아 확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ditto Fest

Be the original

2018

<황금 듀오, 그 세 번째 무대>

용재 오닐 & 임동혁

2018.6.7 (목)

롯데콘서트홀

7

<워너비 듀오>

문태국 & 한지호

2018.6.9 (토)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9

<클라 부는 사나이>

김한

2018.6.10 (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10

<디어 마에스트로>

마이스키 & 디토

2018.6.12 (화)

롯데콘서트홀

12

<다이내믹 라운드>

양상블 디토 Ep.10+1

2018.6.23 (토)

롯데콘서트홀

23

음악으로 영원히 기억될... 내빈 여러분께 경음 기리며

W.A.MOZART

Piano Concerto No.21 in C Major, K.467

Piano Concerto No.8 in C Major, K.246

ORCHESTRA ENSEMBLE SEOUL

AMADEUS

손열음의 <아마데우스>

2018년 10월 7일(일) 5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Sunday, October 7, 2018, at 5PM Seoul Arts Center, Concert Hall

주최 CREDIA INTERNATIONAL yesm 후원 KOREAN AIR 티켓 R석 10만원 | S석 8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예매 Club BALCONY 1577-526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요요 마의 손이 닿으면
낮선 음악도 가장
흥미로운 음악이 된다!

HYOSUNG CULTURE SERIES 5

효성과 함께하는
요요 마 & 실�크로드 앙상블

THE SILK ROAD ENSEMBLE WITH YO-YO MA

2018년 10월 17일(수) 오후 8시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WED OCT 17, 2018 8PM | SEOUL ARTS CENTER, CONCERT HALL

주최 CREEDIA
INTERNATIONAL

협찬 HYOSUNG 후원 KOREAN AIR

티켓 R석 18만원 | S석 14만원 | A석 10만원 | B석 6만원 | 학생석 3만원

예매 Club BALCONY 1577-526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새로운 비행의 역사가 제2여객터미널에서 시작됩니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REEDIA



대한민국 비행의 역사를 써 내려온 대한항공이 또 한 번 새로워집니다.
더욱 쾌적하고 편리해진 대한항공의 특별한 서비스를 새로운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경험해보세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조슈아 벨 &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CREDIA



CREDIA Music & Artists 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 Music & Artists 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 Music & Artists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크레디아 페이지(www.credia.co.kr)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REDIA Music & Artists

www.credia.co.kr